

상인회장이 뭐길래...선거 싸고 쪼개진 말바우시장

2표차로 진 후보측 "무자격 회원에 목사까지 투표...부정선거" 주장 사퇴 번복 전임회장측 "문제없다"...일각선 점포 선정 이권 의혹 제기 부정투표 검찰 고소...이용섭 시장 방문한 자리에서 양측 몸싸움도

광주 북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말바우시장이 상인회장 선거를 놓고 두파로 쪼개지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들은 19일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의 방문한 자리에서도 서로가 진짜 상인회 대표라며 몸싸움까지 하는 등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말바우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말바우시장 6대 상인회장(임기 3

년)을 뽑는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에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선을 연임한 현 상인회장 A(53)씨와 후보자 B(57)씨가 출마했다. 상인회원 452명 중 380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A씨가 B씨(188표)보다 2표가 많은 190표를 받았다. 나머지 2표는 무효 표였다. 하지만, B씨측은 개표 직후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B씨 측은 "A씨가 현직이라는 이점을 이용해 정관 부정선거를 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했다. A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6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않아 회원자격이 박탈된 상인들과 시장 내 교회 목사에게도 투표권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 B씨 측은 시장에서 지난해 5월부터 장사를 하지 않아 회원 장부와 선거인 명부에서 빠진 한 상인에게서 "A씨의 중용으로 투표를 했다"는 진술과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하도록 했다"면서 "선거 당시 상인회 임원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 없이 선거를 치렀다"며 맞서고 있다.

말바우시장 선거관리위원장 C씨도 "선거 한달 전에 회비만 납부하면 누구든지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공고했으며, 교회 목사는 평소 시장 봉사활동에 참여한 점이 인정돼 상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며 "이번 상인회장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갈등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 7일 상인회장직에서 물러나고 B씨가 상인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시장 내 방송을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5일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고, 상인회장직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B씨측은 "A씨가 시장 공영주차장과 인접한 점포 24곳의 선정·관리를 담당하거나 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권을

챙겼고, 이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회장을 더하려고 한다"면서 "애초 3선 이상을 하지 못하게 돼 있던 정관도 A씨가 회장이던 지난 2017년 3월 개정을 통해 없앴다"고 주장했다. B씨측은 "조만간 A씨를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횡령 등 각종 루머와 의혹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해소한 후 명예롭게 물러나기 위해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명예훼손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담임교사가 초등생 폭행" 경찰, 아동학대 여부 조사

초등교사가 제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19일 화순경찰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이 화순 모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 12일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제자를 손찌검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이날뿐만 아니라 평소 체벌 명목으로 제자를 상습폭행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경찰과 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아파트서 경찰 숨진 채 발견

40대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 광주남부경찰 소속 유모(46)경사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옥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경사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업무과로에 따른 심정지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강원도행 외상 택시 거절에 행패

○...택시에 승차해 강원도를 가지며 차량 안에서 행패 부린 40대 가짜 스님이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15분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승복을 입고 택시에 올랐던 A(47)씨는 운전기사 B(27)씨에게 강원도 오대산으로 가 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봉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음식물을 차 안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은 "운전기사 B씨도 처음엔 목돈을 벌 수 있는 장거리 코스를 반기고 10여분간 운행했으나, 대화도중 A씨가 무일푼이라는 것을 알고 하차를 요구한 것"이라며 "A씨는 과거에도 돈 없이 음식을 시켜 먹거나 택시를 타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전과만 20범에 달한다"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버닝썬 게이트' 불똥 튄라 전전긍긍하는 광주경찰청

구속된 전직 경찰과 연락한 광주청 소속 경찰관 내사 윤 총경 광주서 초중고 다녀 해외주재관 부인 소환일정 조율

광주출신 박병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의 '버닝썬(서울 강남 클럽) 게이트'가 광주경찰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연결고리로 지목돼 구속된 광주출신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광주 현직 경찰과도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때문이다. 또 승리와 가수 정준영(30) 등 유명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뒤를 봐주는 경찰(경찰총장)로 거론된 윤모 총경도 피의자로 전환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호남연고 경찰들의 수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청 현직 경찰관이 버닝썬 게이트에 얽혀 구속된 전직 경찰 강씨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전해짐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파악 중이다. 광주청은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측에 내사 중인 광주청 소속 직원이 누구인지를 문의했으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내사단 규모 구체적 협의가 입증돼 입건이 되지 않는 한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서 "단순히 개인적인 연락을 한 것 일 수도 있지 않겠

느냐"고 말했다. 현재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강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이 있는 경찰들을 내사 중이며, 이 중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내부에선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인물 중 상당수가 호남출신이라는 점에서, 광주청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전직 경찰인 강씨 외에도 윤 총경 등도 사실상 광주출신이기 때문이다. 윤 총경은 경찰 인적사항판에는 자신을 서울출신으로 밝히고 있지만,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니다 고교 시절 서울로 전학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함께 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인물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FT아일랜드 최중훈(29)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김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K팝 공연 티켓을 마련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초 윤 총경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유 대표 부인 배우 박한별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총경의 계좌 거래와 통신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출국금지 등을 신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G이용 재난안전시스템 현장보고회

광주 5개구청과 산하기관 등이 참여한 전국 최초 스마트 재난안전시스템 현장보고회가 19일 북구 연제동 힐스테이트아파트 건립 공사장에서 열렸다. 문인 북구청장이 5G 통신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영상 보고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훤친 휴대전화서 보안카드 사진·비밀번호 발견 4000만원 빼내 3300만원 탕진 '간큰 고교생들'

지난달 8일 화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A(16)군 등 3명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점집방을 찾았다. 동네 선·후배사이로 휴대전화 전문 털이범인 이들은 이날 새벽 3시께 점집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색 중 휴대전화를 옆에 놓아두고 자고 있는 B(63)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만원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 뒤 인천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금 카드로 4일동안 수백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와 옷을 사는 등 3300여만원을 탕진했다. 뒤늦게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B씨는 경찰신고로 통해 입금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남은 잔고는 879만 원 뿐이었다. 경찰은 고등학교 주변탐문과 CC-TV를 통해 한달여만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만원이 들어있었다. 이들은 곧바로 자신들의 계좌로 전액을 이체한 뒤 인천으로 도주했다. 이후 현금 카드로 4일동안 수백만원 상당의 고가 명품 시계와 옷을 사는 등 3300여만원을 탕진했다. 뒤늦게 현금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B씨는 경찰신고로 통해 입금계좌지급 정지 신청을 했지만, 남은 잔고는 879만 원 뿐이었다. 경찰은 고등학교 주변탐문과 CC-TV를 통해 한달여만에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갈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